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799천km ²	GDP	128 억 달러(2011년)
인구	23.90 백만명(2011년)	1인당 GDP	583 달러(2011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etical (MT)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9.07(2011년)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3.9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FDI의 유입이 급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양호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당 GDP가 583 달러('11년)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프라구축,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GDP 대비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임.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빈부격차 심화와 1당 장기집권으로 인한 누적된 불만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농업 등 산업의 호조와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11년 모잠비크 경제는 농업, 광업, 운송업 등의 호조와 자원 부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FDI 유입규모 : 5.9억 달러('08) → 8.9억 달러('09) → 9.9억 달러('10) → 20.9억 달러('11)

- 모잠비크는 이미 투자가 진행중인 Moatize 석탄 개발 프로젝트, 최근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초대형 가스전 등으로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운송업, 통신업, 관광업 등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이후에도 8%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긴축정책과 국제 식품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 완화

- 2010년 한때 19%까지 급등하며 유혈시위를 야기하였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 식품가격의 하락 등으로 2012년 상반기 5.6% 수준으로 둔화되었음.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통화공급 완화, 국제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전망

□ 대규모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11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8% 수준을 기록하였음.

- 모잠비크는 현재 재정지출의 40% 가량을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견조한 경제성장, 광업부문 세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원조 의존도 또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 그러나 공공보건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하여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제성장률	6.8	6.4	7.2	7.2	8.0
재정수지/GDP	-2.5	-5.4	-3.5	-3.8	-3.6
소비자물가상승률	10.3	3.3	12.7	10.4	4.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원부문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

- 최근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자원부문 개발을 위한 FDI 유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국제적인 자원수요 감소 또는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시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함.
 - 과거에는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인 주요 수출품목이었으나, 자원부문의 개발로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이 총수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음.
-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등 산업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한 모잠비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업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광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지속

- 모잠비크는 풍부한 자원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오랜 식민지 경험과 내전으로 인한 탐사 미실시, 투자 부족 등으로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04년 세계은행은 동국의 지지부진한 광업개발이 지질학 정보의 부재, 광업 관련 투자법 등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경제 인프라, 공공기관의 역량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협력 아래 2004년부터 지질조사 실시를 지원하는 한편, 광업부문의 투자절차 수립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음.
- 현재 채굴되고 있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철,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의 자원 또한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약 16억 달러가 투자된 Moatize 석탄 광산의 2011년 채굴 개시로 석탄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대두될 전망이며, 2016년경에는 현재의 최대 수출 광물인 알루미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초대형 가스전의 잇따른 발견으로 FDI 유입 가속화

- 모잠비크는 현재 중동부 내륙의 모잠비크 분지(Mozambique Basin)에서 약 2만 톤의 가스를 생산하여 이 중 97%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고 있음.
- 또한 2005년부터 미국의 Anadarko Petroleum社, 이탈리아의 ENI社 등 세계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시추작업을 계속한 북서부 해양지역 로부마 분지(Rovuma Basin)의 제1, 4광구에서 2011년~2012년에 걸쳐 대규모 가스전(추정매장량 100Tcf; Trillion cubic feet)이 확인되며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음.
- 초대형 가스전의 연이은 발견에 따른 에너지 부국으로서의 부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 예상금액은 6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액화(Gas-to-Liquid), 석유 화학 등 관련산업의 육성과 LNG 수출을 위한 설비 투자 본격화 등 연관산업 발전으로 모잠비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긴축 통화정책 추진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 물가 안정을 위하여 2011년 실시한 통화 억제정책의 효과로 2012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율을 5%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음. 하반기에는 국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통화공급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광업부문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 정부는 광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채굴산업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기준인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1차 보고서에 이어 2012년 2차 보고서의 제출을 통한 가입 승인 요청 예정임.
- EITI 가입 요건은 투자회사의 채굴산업 관련 지출의 내역과 이들로부터 수령한 정부의 모든 수입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가입이 승인될 경우 국제사회에 자원 부문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임.

□ 빈곤 감축, 고용창출 산업의 육성, 인프라 개선 등 정책 추진 계속

- 정부는 5개년 발전 전략(2010년~2014년)에 따라 빈곤 감축과 농업, 어업, 관광업, 운송업을 포함한 주요 고용창출 산업의 육성, 자원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상업작물 투자, 기업형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연평균 5%대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IMF의 PSI(policy support instrument)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관리, 외채 관리 전략 수립, 금융 부문 개혁 등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 가계부문 소득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지나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시장의 비효율성 등 열악한 기업환경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기업환경 개선작업의 진행이 미흡한 상황임.

3. 대외거래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등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 확대로 만성적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13%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다년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 상 수 지	-1,179	-1,220	-1,113	-2,361	-3,100
경 상 수 지 / G D P	-11.9	-12.2	-11.7	-13.0	-12.7
상 품 수 지	-990	-1,275	-1,179	-2,268	-2,905
수 출	2,653	2,147	2,333	3,729	4,037
수 입	3,643	3,422	3,512	5,997	6,942
외 환 보 유 액	1,578	1,929	1,992	2,304	2,845
총 외 채 잔 액	6,093	5,798	5,681	6,537	7,322
총 외 채 잔 액 / GDP	61.5	57.5	58.0	54.0	54.2
D S R	17.9	16.4	14.7	11.7	14.5

자료: IMF, EIU.

□ FDI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자원개발, 운송, 통신, 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8년 약 16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2011년에는 23억 달러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음.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높은 경제 성장률과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부문, 공공 개혁 및 인프라구축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7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GDP 대비 외채잔액 비율은 2011년 54.0%로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GDP 증가로 2008년 61.5% 대비 7.5%p 하락하였으며, D.S.R. 또한 2008년 17.9%에서 2011년 11.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 성장 및 광업부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채 상환능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 체제 지속

- 現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은 당의 지도자이자 모잠비크 초대 대통령인 사모라 마셀(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반군세력 민족저항(Renamo)과의 내전을 평화협상으로 이끈 호아킴 치사노(Joaquim Chissano)를 거쳐,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아르만도 궤부자(Armando Guebuza) 現 대통령에 이르는 장기 집권체제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10월말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現 궤부자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민주전선의 집권체제가 이어졌으며, 야당인 민족저항의 세력 약화로 다가오는 2014년 대선까지는 민주전선의 집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민족저항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2011년과 2012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 및 부패에 대한 소외집단의 불만고조

- 민주전선(Frelimo)의 1당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과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의 정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2004년 대선을 포함한 과거 수차례에 걸친 부정선거를 둘러싼 유혈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 심화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

-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빈곤 감소로 연결되지 못하여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불평등 및 부정부패의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 가중의 우려가 있음.
- 정부는 빈곤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중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된 소득격차 해결과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부의 핵심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물가 불안 등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위험 상존

- 2008년 2월 수도 마푸토(Maputo)의 빈민지역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50% 인상에 대한 반발 시위가 발생하였고, 2010년 9월 식품가격 등 물가의 폭등에 격분한 국민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이어지는 등 물가의 불안이 수차례 소요사태를 야기한 바 있으며, 집권여당 등 기득권층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이 심화되고 있어 소요사태 발생위험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독립 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서부 원조공여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철도, 광업부문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고, 가스전 발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LNG 주요 수입국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교역, 투자, 관광, 이민 등 전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모잠비크는 그동안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남아공과 함께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짐바브웨의 경제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에 따라 1999년 및 2001년 각각 37억 달러 및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 받았으며,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 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29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 받은 바 있으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있음.
- 2011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 지원잔액은 단기 1.2백만 달러, 중장기 2.8억 달러이며 중장기 지원잔액 중 9백만 달러가 연체중임.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 기록은 없음.

□ 외채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

- 대규모 외채 탕감에 따른 외채 부담 완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 규모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 외채의 상당부분이 원조국으로부터의 soft loan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환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 경제 성장 및 광업부문 수출 증가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대규모 연체 및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2. 7)	D1 (2009.12)
OECD	6 (2011.10)	6 (2010.10)
S&P	B+ (2012. 2)	BB (2007.12)
Fitch	B (2011. 8)	Ba2 (2010. 8)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3. 8. 11 (북한과는 1975. 6. 25)

□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10)

□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 규모는 약 65백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백만 달러, 수입은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24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12년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2건, 200천 달러

<표 4>

한 · 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35,311	34,536	40,986	합성수지,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수 입	4,518	6,340	23,775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모잠비크는 농업, 광업, 운송업 등의 호조와 자원부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FDI 유입 증대 등에 힘입어 연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 천연가스의 개발을 위한 투자 유입 지속, 수출 증대 등으로 2012년에도 8%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583달러('11년)로 여전히 최빈국에 머물고 있음.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의 부담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보다 심화될 전망이나, FDI 유입 규모와 soft loan 위주의 외채 성격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정치적으로는 모잠비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주전선(Frelimo)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집권층의 이권독점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기조 및 GDP 대비 과중한 외채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다소 취약한 편이나,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최근 자원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FDI 유입 확대 및 이에 기반한 양호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책임조사역 조예림(☎02-3779-5720)
E-mail : yrcho@koreaexim.go.kr